

## 여행과 스마트폰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 분석 : Paradigm Funnel Approach을 이용한 체계적 문헌분석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n travel and smartphone relations : Focusing on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using Paradigm Funnel Approach

정산설\* · 이 훈\*\* · 김경배\*\*\*

Jung, San-Seol · Lee, Hoon · Kim, Kyoung-Ba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iods of research paper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trends and research theories from 2007 to 2020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journals on smartphones and travel. In addition, this research attempted to use the Paradigm Funnel method to compare and analyze these research papers and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st frequently studied research topic in Korea is ease of using smartphones (51.6 %) and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ology was quantitative analysis (96.9 %). On the contrary, in international studies, 65.0% of quantitative studies were conducted, and 33.3% of qualitative studies were used, which was relatively balanced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Additionally, the analysis using the Paradigm Funnel method was ad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classifying Korea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sta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domestic tourism research focused on research on the usefulness of the application, and conducted research focusing on specific viewpoints and specific research methodologies. On the other hand, overseas tourism research has a relatively wide research spectrum.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vers various research topics such as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travel ecolo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s and travel.

**Keywords:** Smartphone,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Paradigm Funnel, Smartphone Dependency, Travel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19S1 A5C2A02082896)

※ 이 논문은 제87차 (사)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정산설,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jsan0114@naver.com>

\*\* 교신저자,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hoon2@hanyang.ac.kr>

\*\*\* 공동저자, 김경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kenneth7@hanyang.ac.kr>

## 1. 서론

스마트폰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으며, 신뢰할 수 있고 제한 없는 인터넷을 제공하며, 위치기반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Want, 2009). 스마트폰 진화의 흐름과 함께 최근 연구들은 스마트폰이 여행자들에게 다방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며, 스마트폰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간의 심리적 상태에도 기여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Brown & Chalmers, 2003; O'Brien & Burmeister, 2003; Rasinger, Fuchs, & Hopken, 2007).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제공은 일상생활에 다방면으로 의존도를 높여 영향을 미치며 여행 및 관광 산업은 급격한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류성옥 · 최일선 · 이훈, 2014; Kennedy-Eden & Gretzel, 2012; Wang, Park, & Fesenmaier, 2012).

익스피디아가 2016년<sup>1)</sup> 디지털 디바이스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의 10명 중에 8.2명이 “여행을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낮은 사용자일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여행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10명 중에서 6명(60.6%)이 “충전 가능한 장소를 찾아간다.”, “숙소로 돌아간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상관없이 예정된 일정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9.4%로 스마트폰은 여행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여행에서 스마트폰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에 여행자에게 스마트폰의 중요성 및 의존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 차원을 넘어

서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역할 확장은 개인의 태도와 함께 감정 변화까지 영향을 주어 여행 자체에 포함되어 완전히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의 중요성과 스마트폰 이용의 수용력 등의 인식을 바탕으로 관광자의 만족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를 진행하는 스마트폰의 정보 공급자의 입장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김대연, 2010; 신상준, 2019; 유순호, 2019; 조현준 · 이훈, 2001; 최미선, 2016), 수용자 입장에서 공급자의 각 요인이 아닌 개별의 안정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의존도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최근의 해외 관광 저널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능적 역할과 함께 여행 행동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상의 변화를 연구하며(Choi, Wang & Sparks, 2019; Fuchs, Beers & Hopken, 2009; Kim, Park & Morrison, 2008; Lei & Law, 2019; Tussyadiah & Zach, 2012), 스마트폰과 여행일상의 관계의 밀접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 역시 스마트폰과 관광 및 여행에 관한 국내 연구는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기능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공급자의 마케팅적 차원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하고 있어, 수용자의 입장에서 스마트폰 자체가 가지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본질적 의미에 대한 연구 단계로 확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행 수요자 입장에서 국내 스마트폰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스마트폰과 여행자의 관계의 의존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외 관광연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여행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역할변화에 따른 향후 연구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외 관광학 분

\* “스마트폰 없으면 여행 못가요” 익스피디아 설문 (2016. 01. 25). 스포츠동아.  
Retrieved from <https://sports.donga.com/ent/life/article/all/20160125/76117116/1>

야의 주요학술지에 실린 관광관련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Quantitative Literature Review)로 국내외 연구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관광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여행과 스마트폰의 연구 경향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국내외 스마트폰과 여행 관계 연구를 Nairn, Berthon & Money(2007)의 패러다임 편별법을 이용하여 기존 논문의 특성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로 분류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행과 스마트폰의 관계

스마트폰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단말기 자체가 휴대성이 높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고, 위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스마트폰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휴대폰 이용자 수가 매년 상당 수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자가 원하는 관광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4년부터 관광지, 음식점, 숙박지 등 관광정보 DB를 모바일에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김용일 · 허준 · 황지영, 2014).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과 이용도의 증가로 사람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Li, Su, Hu & Yao, 2019). 단순한 기술적 유용성의 차원을 넘어서 일상의 한 부분인 여행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은 불가분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의존도를 보여 다양한 활동

에서 스마트폰의 기여가 높아지고 여행행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여행 중에 스마트폰의 기술을 사용하여 가족 및 친구들과 기존의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White & White 2007; Wong, Lai & Tao, 2019), 일상 속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Mascheroni, 2007; Rodriguez-Torrice, Prodanova, San-Martin & Jimenez, 2019; Tussyadiah & Fesenmaier, 2009). 새로운 미디어인 스마트폰은 이제 계획, 예약 및 탐색과 같은 기본 여행 활동뿐만 아니라 여행 과정 내에서 대인 관계 구성, 안전에 대한 도움 등 광범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Wang, Park & Fesenmaier, 2011; Wang, Xiang & Fesenmaier, 2014). 그 결과 스마트폰은 여행의 객관적 및 심리적 경험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Kramer, Modsching, Hagen & Gretzel(2007)은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여행의 본질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어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과 여행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특별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Gretzel, Fesenmaier & O'Leary, 2006).

### 2. 스마트폰 의존도(smartphone dependency)

스마트폰 이용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논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은 스마트폰 이용 영향력을 어떤 기준으로 개념을 규정할 것 인지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용 여부 또는 이용시간의 정도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력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여부와 이용시간 정도를 통한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고 구체적인 한계점에 관하여 지적해왔다(Caplan,

2002; Jung, Qiu, & Kim, 2001). 특히 이용시간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을 측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기에 실제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영향력과 의존도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사용여부나, 사용 시간으로 규정하기 힘들며, 실제로 스마트폰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인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사용여부/시간보다는 개인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Kim, Jung, & Ball-Rokeach, 2006).

‘스마트폰 의존도’라는 개념은 Ball-Rokeach (1985)의 미디어체계의존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디어체계의존이론에서 미디어 의존 개념은 개인의 일상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다(Grant, Guthrie & Ball-Rokeach, 1991). 미디어체계의존이론을 토대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의존도는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의존도는 중독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이 특정한 매체의 이용량과 이용 정도를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나(Young, 2004), 스마트폰 의존도는 통제적 의미가 아닌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구조적인 위치에 대한 개념이다.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 정도에 상관없이 실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적더라도 스마트폰이 삶의 중요한 영역에 위치하는 필수불가결한 대상으로 여긴다면 높은 의존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연구방법

체계적 문헌분석 방법론(Systematic Quantitative Literature Review)은 건강 과학 및 사회 과학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법론이며, 이를 사용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양적 문헌 검토가 수행되었다(Petticrew, 2001). 스마트폰과 여행 및 관광에 관련 된 논문을 체계적으로 찾고 분류를 통해, 해당 연구 분야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게재 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폰과 여행에 관한 SSCI급 관광 해외 저널(60개)을 인용하여 KCI 국내 연구(64개)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관광경영연구, 관광레저연구, 관광연구, 관광연구논총, 관광연구저널, 관광학연구, 대한경영학회지, 호텔경영학연구를 선정하였고, 해외저널은 'Annals of Tourism Research,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Tourism Management, Travel Behaviour and Society, Current Issues in Tourism'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검색에 사용 된 키워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광' 및 '여행'이다. 검색결과 범주화 된 자료를 바탕으로 Berthon, Narin & Money's(2003)가 제시한 paradigm funnel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논문의 수준을 “탐색적인 관찰(Level 1), 분석적인 방법 (Level 2), 이론적인 적용(Level 3), 보다 심도 있는 추정 (Level 4)” 4가지로 분류하여 문헌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lt;Table 1&gt; Paradigm Funnel Approach level division

Level	Research Focus	Question Posted by Researcher	Research Process
Level 1	Empirical observations	What is observed in nature?	Generation of data
Level 2	Analytical methods	Are the mechanisms by which data are mapped to theory correct?	Ordering, structuring, and manipulation of data
Level 3	Specific theory	Are our theories correct?	Articulation of theoretical generative mechanisms and associated empirical propositions
Level 4	Deep assumptions	Are our core metaphysical assumptions correct or appropriate?	Questioning of deep ontological, epistemological, methodological, and axiological assumptions

Naim, Berthon, &amp; Mondy, 2007, p. 261.

1. 우리나라 관광학 분야에서는 스마트폰과 여행에 관련하여 어떤 주제들이 연구되어 왔는가?
2. 우리나라 관광학 분야의 스마트폰과 여행은 해외의 연구경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패러다임 편별법을 이용하여, 국내외 연구를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로 분류한 결과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광학 분야의 여행과 스마트폰 간의 연구경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국내외 관광학술지 연구방법 동향분석

국내연구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및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등의 특정 부분에 집중한 정량 연구가 96.9%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인과관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연구는 2개(3.1%) 연구에서만 진행되었으며, 이는 백경중 · 박용순(2015)의 모바일 앱 공급자와 사용자의 심층인터뷰 연구와 조승행 · 구본기(2013)의 리조트관광자를 위한 스마트폰 웹 서비스에 관한 사례연구였다.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이 각각 58개, 43개의 논문에서 쓰이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AMOS를 활용한 전체 모형의 구조분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외 학술지는 Dayour, Park & Kimbu(2019)의 배낭여행 경험 있는 사람 중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있어 위험지각과 방문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혼합연구 외에 전

체 60개 중 정량연구는 65.0%(39개)를 차지하였으며, 정성연구 역시 33.3%(20개)로 나타나 국내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적 및 질적 연구가 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연구와 달리 양적 연구 분석 시 텍스트 마이닝, 행동반경 확인 위한 빅데이터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 경험 본질의 변화에 집중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Larsen, Urry, Axhausen, 2007; Rodriguez-Torrico et al., 2019; Wang, Xiang & Fesenmaier, 2014), 스마트폰과 여행의 관계를 분리된 실체로서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지 않고, 특별한 연관성에 집중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국내 연구의 모델과 이론에 관한 성향을 분석한 결과 TAM이 42.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TRI와 UTAUT 등을 활용한 연구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기술용이성 측면을 강조한 이론 외에 관광정보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연구가 28.1%로 두 독립변수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는 사용의도(51.6%)와 만족도(31.3%)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국내 스마트폰 및 관광과 관련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경험의 분석이 아닌 스마트폰이 주는 용이성과 기능에 중심을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omestic journal research methodology

Domestic journals					
Methodological analysis(1)	N	%	Methodological analysis(2)	N	%
Quantitative research	62	96.9	tracking analysis	2	3.1
Qualitative research	2	3.1	Case study	1	1.5
multiple research	0	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9	90.8
Statistical methods	N	%	in-depth interview	1	1.5
Factor analysis	58	89.2	quasiexperimental study	1	1.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3	66.2	Control experiment study	1	1.5
Regression Analysis	15	23.1	Statistical uses	N	%
T-test/ANOVA	2	3.1	AMOS	43	66.2
Kendall's W	1	1.5	SPSS	52	96.3
International journals					
Methodological analysis(1)	N	%	Methodological analysis(2)	N	%
Quantitative research	39	65	tracking analysis/text mining	12	20
Qualitative research	20	33.3	Case study	1	1.7
multiple research	1	1.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7	45
Statistical methods	N	%	in-depth interview	11	18.3
Factor analysis	11	18.3	quasiexperimental study	1	1.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9	31.7	Concept research	2	3.3
Multi-group analysis	1	1.7	Statistical uses	N	%
Logistic Regression	2	3.3	AMOS	19	31.7
Regression Analysis	2	3.3	SPSS	24	40
T-test/ANOVA	4	6.7			
big data analytics	14	23.3			

<Table 3> Domestic journal model and theory

Research method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	%		N	%	
Quantitative research	Ease of technology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27	42.2	Intention to use	33	51.6	
		Technology readiness index(TRI)	4	6.3	satisfaction	20	31.3	
		UTAUT	2	3.1	Use	2	3.1	
	Information characteristics	SERVQUAL	18	28.1	Word of mouth intention	2	3.1	
		Touris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3	4.7	Big data		N	
	ETC	Word-of-Mouth Communication	2	3.1		Trackingdata analysis		2
		ECM	2	3.1	Movement patterns		2	
		extended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1	1.6	Qualitative research		N	
		Destination image	1	1.6		Content analysis		1
		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3	4.7				
		Involvement	2	3.1				
		process theory	1	1.6				

&lt;Table 4&gt; International journal model and theory

Research method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	%		N	%	
Quantitative research	Niche theory	1	1.7	Intention to use	10	16.7	
	UTAUT :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2	3.3	behavior intention	5	8.3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6	10.0	Use	3	5.0	
	Theory of Planned Behavior	1	1.7	intention to recommend	1	1.7	
	Process theory	1	1.7	satisfaction	3	5.0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1	1.7	Risk Perception	2	3.3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1	1.7	emotion	1	1.7	
	Risk Perception	2	3.3	stress	1	1.7	
	PADmodel	1	1.7	Perceived benefits	1	1.7	
	SOR: Stimulus-Organism-Response	1	1.7	Resilience	1	1.7	
	memorable tourism experience	1	1.7	MPA	1	1.7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DIT	1	1.7	Qualitative research	Exploratory research	4	33.3
	Social Cognitive Theory	2	3.3		Concept analysis	3	
	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1	1.7		Case study	1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2	3.3		In-depth interviews	10	
					Content analysis	1	
			Focus group interview		1		
	Big data	9	15.3				

## 2. 국내외 관광학술지 주요 활용 이론 현황

국외 학술지도 국내 학술지와 같이 기술수용모델(TAM)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의 확장인 UTAUT 연구 외에 관광에서 스마트폰의 활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된 심리적인 변수인 주의회복 이론, 위험지각, 기억에 남는 관광경험, 및 기대 일치 이론 등의 다채로운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Dayour, Park & Kimbu, 2019; Kirillova & Wang, 2016; Wong, Lai & Tao, 2019). 또한 종속변수에서도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어 심리적인 혜택을 강조하기 위한 ‘위험지각(3.3%), 스트레스, 지각된 혜택, 회복력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스마트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odriguez-Torrice et al., 2019). 스마트폰의 기술적, 정서적 부분의 심리적 차원 등 다각도에서 여행

에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및 여행자의 밀접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 국내외 관광학술지 주요 연구 쟁점 분석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스마트폰의 유용성을 기반으로 기능적인 편의성과 용이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준 · 김용일, 2014; 박현지 · 권영국, 2007; 한사비나 · 윤지환 · 김정만, 2014; 한진성 · 윤지환, 2014),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유용성과 스마트폰의 편리한 이용 등의 기기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외학술지는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사용 용이성(16.7%)을 강조한 스마트폰의 기능적 활용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스마트폰의 여행에서 역할(21.7%)과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경험의 변화적 측면을 분석(23.3%)한 연구

가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단순한 기능적인 스마트폰의 역할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 경험의 영향측면과 변화 등의 인식적인 부분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Tracking data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전반적인 행위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역시 15.0%를 차지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객의 실제 행위적 측면(공간 소비패턴 등)에 중점을 둔 연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의 쟁점을 살펴본 결과 국내연구는 스마트폰과 여행의 관계를 감정적 차원으로 보지 않고 관광 관련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이용의 용이성 대한 인식 및 모바일 관광정보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수용자가 지각하는 기술용이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반면에 국외연구는 국내 연구에 비하여 연구 스펙트럼이 확장되어 있었다. 다양한 인식적, 심리적 및 기능적 이론의 활용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수용자가 지각하는 기술 용이성의 상태를 확인한 연구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다방면의 인지 작용을 확인한 연구와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경험의 심층적인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여행자의 의존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 4. 국내외 관광학술지 Paradigm Funnel 분석

##### 가. 국내 연구 Paradigm Funnel 분석

Paradigm Funnel 분석의 Level 1은 탐색적 관찰 연구로 연구과정을 기초자료 생성하는 국내 연구는 1개(1.6%)로 나타났다. Level 2는 체계화된 논문으로 순서, 구조화 등을 분석적으로 다룬 것이며 스마트폰 및 관광 논문 중 13개(20.3%)가 Level 2로 분류되었다. 13개의 논문은 ① 모바일 관광어플리케이션의 편의성과 만족도 관련 논문이 3건, ② 빅데이터 통한 행동 추적을 통한 관광객 특성 연구 2건, ③ 스마트폰을 통하여 얻는 관광정보에 대한 인식으로 대상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분석한 연구 5건, ④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2건으로 나타났다. 관광어플리케이션과 편의성 관련 논문에서는 조미혜(2017)는 한국 거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관광정보의 관여도와 관광정보 사용행동 및 역할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지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인식과 신뢰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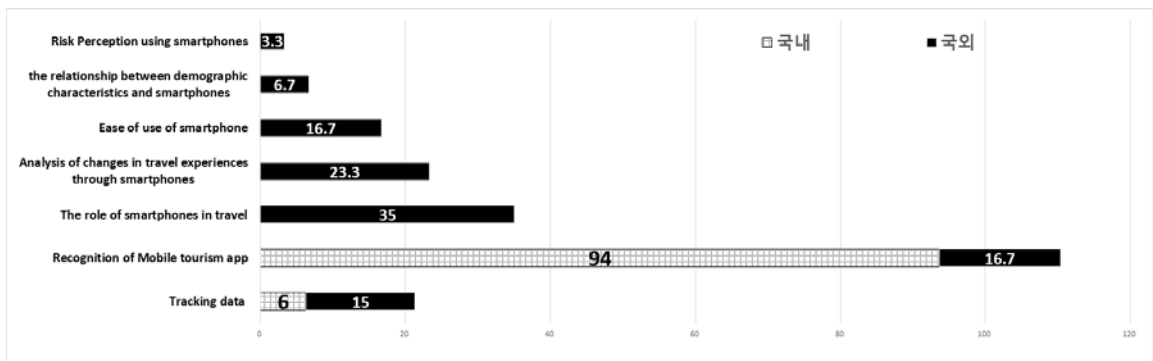


Figure 1.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spectrum



확인하는 연구(김용일 · 허준 · 황지영, 2014)를 하였다. 또한, 박은숙(2015)은 모바일 관광정보가 관광지 이미지에 주는 긍정/부정의 이미지를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외 모바일 관광목적지 정보의 신뢰성과 대상지의 장소애착과 연관성(윤태정 · 심우섭 · 이재곤, 2018),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이용 따른 시장 세분화 위한 군집분석(유유식 · 김기철, 2012)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50개(79.7%)의 논문이 Level 3에 분류되었으며, 스마트폰 및 관광 분야의 기존 이론적 구조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급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인터뷰한 백경중 · 박용순(2015)의 심층인터뷰 외에는 모두 양적 연구 방법이었다. 신상준(2019)은 SERVQUAL(서비스 품질)과 TAM(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반응성, 신뢰성, 혁신성이 유용성 및 용이성에 주는 영향

<Table 5> Paradigm Funnel approach : Domestic journals

Funnel level	N	%	Authors and data of articles
Level 1 Empirical observations	1	1.6	Cho & Ku(2013)
Level 2 Analytical methods	13	20.3	Kim, Hur & Hwang(2014), Kim, Jung & Lee(2018), Kim & Kim(2014), Ryu, Choi & Lee(2014), Park & Yoon(2014), Park (2015), Jo(2017), Yoon & Kim(2012), Yoon, Sim & Lee(2018), Jang(2012), Hyun(2011)
Level 3 Specific theory	50	79.7	Kang, Park & Kim(2013), Kim, Mang & Hwang(2012), Kim(2012), Kim & Kim(2011), Kim & Lim(2014), Kim & Park(2013), Kim, Heo & Kim(2015), Kim, Lee & Kim (2013), Kim, jung & Byun(2015), Kim, Hyun & Park (2013), Park, Park & Han(2015), Park & Kwon (2007), Baek & Park(2015), Baek(2016), Shin(2017), Shin (2019), Ahn & Lee (2014), Oh & Lee(2015), Euro, Son & Kim(2016), Yoo (2019), Yu & Yoon (2015), Yoon, Kim & Kim (2017), Yoon, Yoo & Jang (2013), Lee, Yoon & Park (2012), Jung,, Lee & Koo (2014), Jung (2016), Choi (2016), Choi, Huh & Byun(2016), Choi, Yoo & Cho (2014), Choi & Choi (2010), Vina, Yoon & Kim (2014), Han & Hyun(2010), Han & Yoon(2014), Heo (2014), Hyun & Lee (2015)
Level 4 Deep assumptions	0	0.0	-
Sum	64	100	

<Table 6> Paradigm Funnel approach : International journals

Funnel level	N	%	Authors and data of articles
Level 1 Empirical observations	5	8.3	Dickinson, Hibbert & Filimonau (2016), Hjalager & Flagestad (2012), Lamsfus, Wang, Alzua-Sorzabal & Xiang (2015), Murphy, Chen & Cossutta (2016), Dickinson (2016)
Level 2 Analytical methods	28	46.7	Ahas, Aasa, Mark, Pae & Kull (2007), Andersson, Hiselius & Adell (2018), Bucher, Mangili, Cellina, Bonesana, Jonietz & Raubal (2019), Dickinson, Filimonau, Hibbert, Cherrett, Davies, Norgate, Speed & Winstanley (2017), Dickinson, Ghali, Cherrett, Speed, Davies & Norgate (2014), Grinberger & Shoval(2019), Janzen, Vanhoof, Smoreda & Axhausen (2018), Kim, Xiang & Fesenmaier(2015), Kim & Law (2015), Kubo, Uryu, Yamano, Tsuge, Yamakita & Shirayama (2020), Lachapelle & Jean-Germain (2019), Lalicic & Weismayer(2018), Law & Masiero (2017), Lyu & Hwang (2015), Lyu & Lee (2015), Mariani, Borghi & Gretzel (2019), Morosan(2015), Stienmetz, Levy & Boo (2013), Lei & Law(2019), Smith, Li, Pan, Witte & Doherty (2015), Tussyadiah (2016), Vu, Li, Law & Zhang (2018), Wang, He & Leung (2018), Wang, Li, Li & Zhang (2016), Wang, Park & Fesenmaier (2012), Yue, Lan, Yeh & Li (2014), Yu, Anaya, Miao, Lehto & Wong(2018)
Level 3 Specific theory	17	28.3	Chen, Huang & Petrick (2018), Choi, Wang & Sparks (2019), Chuang (2019), Jung, Chung & Leue (2015), Dayour, Park & Kimbu (2019), Dieck & Jung (2018), Fatima, Ghandforoush, Khan & Mascio (2019), Fong, Lam & Law(2017), Hew, Leong, Tan, Lee & Ooi(2018), Kim & Preis(2016), Kirillova & Wang(2016), Li, Su, Hu & Yao(2019), Lu, Mao, Wang & Hu(2015), Min, So & Jeong (2019), Okazaki & Hirose (2009), Park & Tussyadiah (2017)
Level 4 Deep assumptions	10	16.7	Floros,Cai, McKenna & Ajeeb (2019), Larsen, Urry & Axhausen (2007), Tussyadiah & Wang(2016), Wang, Xiang & Fesenmaier (2016), Wang, Xiang & Fesenmaier (2014), Wong, Lai & Tao (2019), Rodriguez-Torrico, Prodanova, San-Martin & Jimenez (2019), Xu, Nash & Whitmarsh (2020)
Sum	60	100	

을 확인하였고, 정남호 외(2014)는 기술수용준비도(TRI: Technology Readiness Index)(낙관주의/혁신성/불편감/불안정성)과 TAM개념을 활용하여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 외 다수 연구에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연구는 스마트폰과 관광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생성을 중심에 둔 연구(1.6%)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기술 수용에 관련한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의 흐름을 적용한 Level 3 수준의 연구가 79.7%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기술이나 앱 활용에 관련한 기능적인 부분의 요인을 분석하여 관광객의 행동과 인과관계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스마트폰과 관광 간의 가치론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추정과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두 대상 간의 인식적 변화에 영향을 집중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연구는 기능적 이론에 집중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량의 증가로 여행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높아진 여행의 심리와 행동적 영향 및 변화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한 Level 4 수준의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 나. 해외 연구 Paradigm Funnel 분석

국외학술지에서 Level 1 수준의 스마트폰 및 관광 연구는 5개(8.3%)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북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관광 웰빙 기반을 위해 스마트폰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Hjalager et al., 2012), 캠핑 여행 시 스마트폰과의 단절 경험의 수요조사를 하는 질적연구(Dickinson et al, 2016) 등의 탐색적 연구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및 관광 논문 중 28개(46.7%)가 Level 2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8개의 논문은 ① Tracking data를 활용한 관광객 행위 추적 및 스

마트폰 앱 리뷰 연구 9건, ② 스마트폰 및 관광의 차이분석과 의미분석 연구 4건, ③ 스마트폰 통한 여행 경험과 관련하여 특정 변수 중심의 인과관계를 분석 연구 5건, ④ 질적 연구 통한 스마트폰의 역할의 전환 연구 6건으로 나타났다. ① 관광객 행위 추적 및 스마트폰 앱 리뷰 관련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 추적으로 관광객의 여행지 이용특성 및 행위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였다. Mariani et al. (2019)는 Booking.com에서 120만 건 이상의 온라인 리뷰를 분석을 하였고, Wang et al.(2012)은 100개 여행관련 앱의 리뷰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Dickinson et al. (2014)은 164개의 여행관련 앱을 기능별로 12가지로 범주화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② 스마트폰 및 관광의 차이분석 연구는 관광안내소 방문 유무와 스마트폰 이용 유무에 따른 관광객의 행동 차이 분석을 실시한 연구(Lyu & Lee, 2015)를 포함한다. Lachapelle et al. (2019)는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이용시간에 따른 여행자의 행동 차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연구하였으며, Lalicic et al. (2018)은 스마트폰의 사용정도, 사회적 행위 등이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Yu et al. (2018)은 가족여행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을 인터뷰를 통하여 밝혀 내었으며, Dickinson et al.(2017)은 현상학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기술을 통하여 대인관계 형성이 여행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③ 17개(28.3%)의 논문이 Level 3에 분류 되었으며, 연구 대부분이 특정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술적 영역이 여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그 중 다수의 연구가 기술수용모델(TAM)과 관련하여 관광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기술력 수용의 현황을 조사하였다(Chuang

2019; Dieck et al., 2018; Fong et al., 2017; Hew et al., 2018; Li et al., 2019; Lu et al., 2015; Min et al., 2019). 그 외에 이론을 적용한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Dieck et al. (2018)은 포커스 그룹인터뷰 방식으로 영국 젊은 여성 관광객관광을 중심으로 증강현실의 기술수용정도 확인하기 위하여 TAM이론을 활용하였다. Choi et al. (2019)은 현상학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대 일치 이론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④ 가치론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추정과 방법론적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Level 4에 해당하는 논문은 10개(16.7%)이다.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 후의 관광 개념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관광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 여행의 의미가 변화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Larsen et al., 2007; Rodriguez-Torrice et al., 2019; Wang et al., 2014). 이와 같은 연구는 여행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상황 요인, 인지적 신념, 이전 경험 및 일상적인 사용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단순히 기능적인 유용성의 차원이 아니라 관광 경험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Tussyadiah & Wang(2016)은 단순히 스마트폰이 관광경험의 매개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경험의 특정한 측면의 경험적 감소나 향상을 느끼게 해주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써 변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학술지 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는 Level 3 수준의 공통된 특정 이론을 대입한 구조방정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해외 학술지의 경우 Level 2 연구에 가장 많이 집중하여 기존의 이론적 흐름을 쫓는 연구가 아닌 현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보다 강조하고 있었다. 해외 학술지는 스마트폰과 관광의 관계

에 관하여 Level 2 연구를 통해 현상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론을 기반으로 기술용이성 관련에 집중하여 이론 적용(Level 3)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 여행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구조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것이다. 또한 Level 4에 해당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인 수준의 연구가 16.7%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의 일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시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국외 학술지는 Level 4 차원의 연구를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내 연구는 존재론적 수준, 인식론적, 방법론적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이론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여행의 관계를 보거나 단순한 데이터 중심의 분석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위 수준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적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5. 국내외 연구의 스마트폰 및 여행 비교 분석 결과

스마트폰 및 여행에 관한 국내외 관광저널 연구현황을 연구방법론적, 연구쟁점 및 연구의 패러다임 구분 방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결과, 해외 저널에 비하여 국내 연구는 특정 이론을 중심으로 기능적인 정보 욕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여행의 행위와 스마트폰의 사용 행위는 기능적인 정보를 얻고 신기술에 적응하는 차원에만 집중되었다. 국내 연구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쫓아 관광에서 스마트폰의 기능적 부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구조 속에서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일상과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스마트폰은 여행을 포함하여 우리 삶에 완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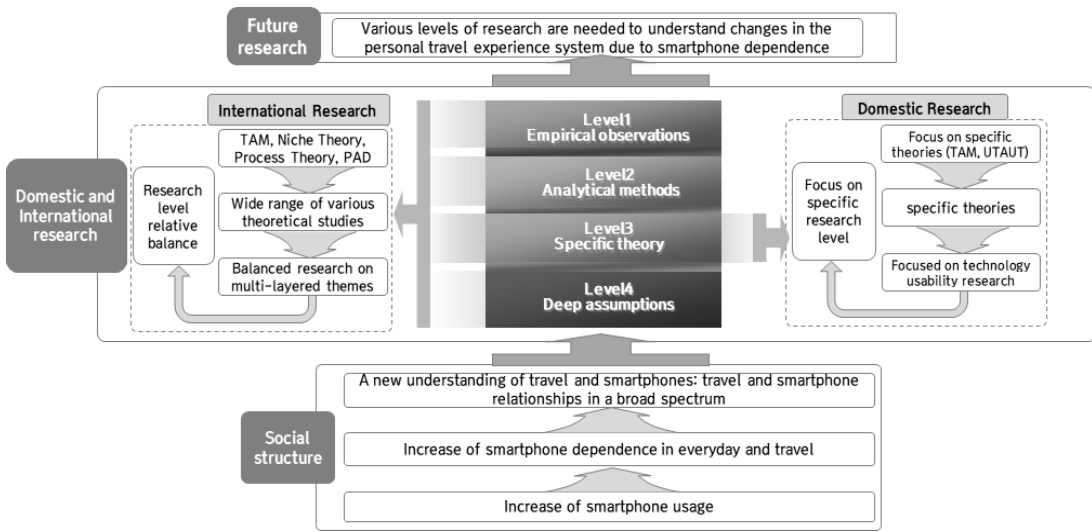


Figure 2. Change model for tourism research on smartphones

통합되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동적인 차원과 함께 심리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상의 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상에서 행동적 및 심리적 변화 유발은 곧 여행자의 관광경험의 변화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스마트폰의 영향력으로 일상의 변화 흐름과 같은 수준에서 여행자의 관광경험에도 심리적 및 행동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해외 관광 학술지는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관광 경험을 포함한 관광 행동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위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조사했다(Kim, Park & Morrison 2008; Kramer et al. 2007).

이와 같은 변화는 여행지에서 정보탐색과 타인과 상호작용 차원의 행위적 의존도를 넘어서서 스마트폰이 감정의 기폭제가 되고 경험자체의 변화까지 구성하는 심리적 차원의 의존도를 함께 형성하게 만들었다. 국외 저널은 스마트폰에 대한 여행자의 의존도가 행위적 및 심리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여행자의 관광경험 자체를 변화 시키는 역동적인 스마트폰의

힘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연구는 여행의 행위와 스마트폰 사용 행위를 기능적 정보 욕구 차원으로 보는 기술적인 측면 이론 중심 연구에 머무르며, 여행객의 편의성 인식에 집중하여 스마트폰의 마케팅적 활용 차원에 맞춰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의 범위를 기능적 차원에 두고 있어 연구 방법론과 이론의 스펙트럼이 해외 저널에 비하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도와 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정보탐색 등의 행위에 도움을 주는 도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심리적인 부분까지 관장하는 현상을 포괄하기 위한 범위의 확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관광 연구는 스마

스마트폰 사용 의존도에 따른 행동적인 차원과 심리적인 차원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의 기능적 용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스마트폰 의존성에 대한 행동 및 심리적 차원의 변화가 나아가 여행자의 관광경험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행자의 기능적인 욕구의 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행복수준(well-being), 쾌락성(Hedonic pleasure),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변화되는 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활용이 여행생태 변화를 촉진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여 개인의 여행 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저널은 스마트폰과 여행자의 심리적 및 행동적 상태를 확인하며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해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국내 연구도 스마트폰의 다층적인 역할과 여행자에게 미치는 변화의 분석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폰과 여행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 간의 영향을 주는 차원을 다양한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국내 연구 역시 기능적인 부분 중심 연구의 범위에서 넘어서서 심리적인 경험을 변화시키고 여행의 생태까지 영향력을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행동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는 여행자 경험의 변화를 만들고 전반적인 여행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고찰 방법인 Paradigm Funnel 통하여 여행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역할 변화 따라 향후 연구

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스마트폰은 지난 몇 년 간 관광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여행자들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존성이 강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폰 및 여행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국내외 연구의 시기별 연구 현황 분석, 관련 문헌의 연구 주제, 연구방법, 연구 주제별 동향 및 연구이론을 체계적으로 문헌 분석하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분류된 연구 시사점을 기반으로 패러다임 편별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 성과물을 4단계로 통합적 분류를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국내 대표 학술지(KCI) 64개 논문과 해외 관광 학술지(SSCI) 중심 60개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체계적 문헌 고찰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국내 학술지는 정량 연구가 96.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외학술지는 정량연구(65.0%) 및 정성연구(33.3%)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국내 연구는 통계분석기법 성향분석에서는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구조방정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폰의 기능적인 특성이 관광객의 행위와 편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의 활용 이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는 기술 용이성과 정보 제공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 총 84.4%로 나타났으며, 해외 학술지는 상대적으로 위험지각, 기억에 남은 관광경험, 사회인식이론 및 기대일치 이론 등 넓은 범주에서 이론이 활용되고 있었다. 국내 연구는 전반적으로 TAM과 서비스품질측정,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 사용자의 만족 및 재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셋째, 주요 연구 쟁점에서 국내는 스마트폰 용이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93.6%로 나타났으며, 국외연구는 스마트폰 용이성 외에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의 경험 변화와 스마트폰의 여행에서 역할 등으로 연구 주제 스펙트럼이 확장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문헌 분석을 종합 후 패러다임 편년법으로 진행한 결과, 국내 연구는 기술용이성 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 만큼 Level 3(이론적용) 수준의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 연구는 다양한 연구 쟁점과 함께 Level 2 수준의 연구가 46.7%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Level 4 수준의 연구를 통하여 심도 있는 가설을 도출하는 연구가 16.7%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 국내 연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정보탐색의 유용성 측면에서 집중하여 특정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관광분야는 스마트폰의 기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공급자의 마케팅에 해답을 주기 위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관광 연구논문은 국외 연구는 연구 쟁점의 스펙트럼을 상대적으로 확장시켜 스마트폰 및 여행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심리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역할 확대로 인한 여행 수요자를 중심으로 의존적인 성향에 집중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관광의 심리적, 행위적, 여행생태적 차원의 변화에 중심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Wang, Park & Fesenmaier, 2012; Wang & Fesenmaier, 2016; Wang, Xiang & Fesenmaier, 2015).

국내 연구는 스마트폰의 정보 기술을 넘어서서 경험적 체계를 바꾸고 총체적인 역할을 통한 개인감정의 변화와 함께 여행의 경험이 전환되는 국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여행일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향

성을 제시하고,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인식론적 변화에 초점을 둔 확장 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채널이 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방면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어(Gretzel et al., 2006), 이에 맞춘 일련의 새로운 과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의 다수 해외 저널에서 사람들의 여행일상에서 모바일 장치 보급 증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표면적 · 내면적 전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Baym 2010; Gretzel 2010; Turkle, 2011; Yoo, 2010). 이처럼 국내연구 역시 관광과 여행분야의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여행자 스마트폰의 의존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행 시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활용한 여행과 일반 여행의 분석 등의 연구로 일상에서 개인의 삶의 변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의 일상에 전반적인 변화를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이며 시의적절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문헌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관광관련 학술지 외 분야로 한정하여 스마트폰 및 관광에 관련 된 타분야의 연구 동향을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추후에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폭 넓은 범위에서 해당 주제를 조사·분석한다면 학술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 시사점을 바탕으로 여행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 범위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및 여행에 대한 폭넓은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연(2010), 모바일관광정보 속성이 관광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용일 · 허준 · 김철원(2015),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을 적용한 관광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지각된 유용성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연구. **관광레저연구**, 27(8), 137-157.
- 김용일 · 허준 · 황지영(2014), 스마트폰 관광목적지 어플리케이션 신뢰형성모델에 관한 연구-지자체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8(4), 55-75.
- 김형준 · 김용일(2014), 스마트폰 외식정보서비스의 구전정보 특성에 따른 신뢰형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외식정보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3(1), 45-64.
- 류성욱 · 최일선 · 이훈(2014), 스마트 정보 환경과 관광안내소 방문 수요. **관광학연구**, 38(4), 121-140.
- 박은숙(2015), 모바일 관광정보가 관광지 이미지 및 관광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7(9), 41-58.
- 박현지 · 권영국 (2007),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특성과 지각된 가치, 행동의지, 실제사용간의 관계분석. **호텔경영학연구**, 16(1), 121-138.
- 백경중 · 박용순(2015), 모바일 여행상품 애플리케이션 특성과 서비스 수용 및 구매의도-모바일 앱 공급자와 사용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0(2), 353-374.
- 신상준(2019), 모바일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가치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3(3), 699-718.
- 유순호(2019), 모바일 여행상품 앱 특성이 용이성, 유용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3(5), 743-759.
- 윤유식 · 김기철(2012), 레저 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과 레저스킬수준 및 참여에 관한 연구: 스포츠 피싱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3), 25-41.
- 윤유식 · 김기철(2012), 스마트폰 관광정보서비스 이용 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1(5), 237-253.
- 윤태정 · 심우섭 · 이재곤(2018), 모바일 관광목적지 관광정보에 신뢰성이 관광목적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82, 25-46.
- 정남호 · 이현애 · 구철모(2014), 관광객의 기술준비도가 증강현실 관광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9(1), 265-285.
- 조미혜(2017), 스마트폰 관광정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관여도, 정보가치, 관광정보 사용행동, 그리고 e-커뮤니케이션의 역할. **관광학연구**, 41(3), 105-130.
- 조승행 · 구분기(2013), 리조트관광자를 위한 스마트폰 웹 서비스에 관한 사례연구. **관광연구**, 28(4), 259-279.
- 조현준 · 이훈 (2001), 인터넷마케팅과 관광축제 정보분석. **문화관광연구**, 3(1), 7-20.
- 최미선(2016), 모바일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8(4), 207-223.
- 한사비나 · 윤지환 · 김정만(2014),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통한 스마트폰 관광어플리케이션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3(3), 19-40.
- 한진성 · 윤지환(2014), 기대확신모델을 통한 모바일 관광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의고착성 형성요인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23(2), 195-217.
- Ball-Rokeach, S. J. (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4), 485-510.
- Baym, N. (2010), Personal connections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Polity*.
- Berthon, P., Naim, A., & Money, A. (2003), Through the paradigm funnel: a conceptual tool for literature analysis. *Marketing Education Review*, 13(2), 55-66.
- Brown, B., & Chalmers, M. (2003), Tourism and mobile technology, In ECSCW 2003 (pp.

- 335-354). Springer, Dordrecht.
- Caplan, S. E. (2002),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development of a theory-based cognitive-behavioral measurement instru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8(5), 553-575.
- Choi, K., Wang, Y., & Sparks, B. (2019), Travel app users' continued use intentions: it's a matter of value and trust,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1), 131-143.
- Chuang, C. M. (2019), A current travel model: smart tour on mobile guide application services, *Current Issues in Tourism*, 1-20.
- Dayour, F., Park, S., & Kimbu, A. N. (2019), Backpackers' perceived risks towards smartphone usage and risk reduction strategies: A mixed methods study, *Tourism Management*, 72, 52-68.
- Dickinson, J. E., Filimonau, V., Hibbert, J. F., Cherrett, T., Davies, N., Norgate, S., & Winstanley, C. (2017), Tourism communities and social ties: the role of online and offline tourist social networks in building social capital and sustainable practic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5(2), 163-180.
- Dickinson, J. E., Ghali, K., Cherrett, T., Speed, C., Davies, N., & Norgate, S. (2014), Tourism and the smartphone app: Capabilities, emerging practice and scope in the travel domain, *Current issues in tourism*, 17(1), 84-101.
- Dickinson, J. E., Hibbert, J. F., & Filimonau, V. (2016), Mobile technology and the tourist experience:(Dis) connection at the campsite, *Tourism management*, 57, 193-201.
- Fong, L. H. N., Lam, L. W., & Law, R. (2017), How locus of control shapes intention to reuse mobile apps for making hotel reservations: Evidence from Chinese consumers, *Tourism management*, 61, 331-342.
- Grant, A. E., Guthrie, K. K., & Ball-Rokeach, S. J. (1991), Television shopping: A media system dependency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18(6), 773-798.
- Gretzel, U. (2010), Travel in the network: Redirected gazes, ubiquitous connections and new frontiers, Post-global network and everyday life, 41-58.
- Gretzel, U., Fesenmaier, D. R., & O'leary, J. T. (2006), The transformation of consumer behaviour, In *Tourism business frontiers* (pp. 31-40). Routledge.
- Hew, J. J., Leong, L. Y., Tan, G. W. H., Lee, V. H., & Ooi, K. B. (2018), Mobile social tourism shopping: A dual-stage analysis of a multi-mediation model, *Tourism Management*, 66, 121-139.
- Hjalager, A. M., & Flagestad, A. (2012), Innovations in well-being tourism in the Nordic countries, *Current Issues in Tourism*, 15(8), 725-740.
- Jung, J. Y., Qiu, J. L., & Kim, Y. C. (2001), Internet connectedness and inequality: Beyond the "divide", *Communication research*, 28(4), 507-535.
- Kennedy-Eden, H., & Gretzel, U. (2012), A taxonomy of mobile applications in tourism.
- Kim, D. Y., Park, J., & Morrison, A. M. (2008), A model of traveller acceptance of mobile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0(5), 393-407.
- Kim, Y. C., Jung, J. Y., & Ball-Rokeach, S. J. (2006), "Geo-ethnicity" and neighborhood engagement: A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spective, *Political Communication*, 23(4), 421-441.
- Kirillova, K., & Wang, D. (2016), Smartphone (dis) connectedness and vacation recovery, *Annals of Tourism Research*, 61, 157-169.
- Kramer, R., Modsching, M., ten Hagen, K., & Gretzel, U. (2007), Behavioural impacts of mobile tour guides, In *ENTER* (pp. 109-118).
- Lachapelle, U., & Jean-Germain, F. (2019), Personal use of the Internet and travel: Evidence from



- the 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s 2010 time use module, *Travel Behaviour and Society*, 14, 81-91.
- Lalicic, L., & Weismayer, C. (2018), Being passionate about the mobile while travelling, *Current Issues in Tourism*, 21(8), 950-963.
- Larsen, J., Urry, J., & Axhausen, K. W. (2007), Networks and tourism: Mobile social lif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244-262.
- Lei, S., & Law, R. (2019), Functionality evaluation of mobile hotel websites in the m-commerce era,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6), 665-678.
- Li, X., Su, X., Hu, X., & Yao, L. (2019), App users' emotional reactions and festiv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situational involvement,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9), 980-997.
- Lu, J., Mao, Z., Wang, M., & Hu, L. (2015), Goodbye maps, hello apps? Exploring the influential determinants of travel app adopt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18(11), 1059-1079.
- Lyu, S. O., & Lee, H. (2015), Preferences for tourist information centres in the ubiquitous information environment, *Current Issues in Tourism*, 18(11), 1032-1047.
- Mariani, M. M., Borghi, M., & Gretzel, U. (2019), Online reviews: differences by submission device, *Tourism Management*, 70, 295-298.
- Mascheroni, G. (2007), Global nomads' network and mobile sociality: Exploring new media uses on the move, *Information, Community and Society*, 10(4), 527-546.
- Min, S., So, K. K. F., & Jeong, M. (2019), Consumer adoption of the Uber mobile application: Insights from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an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7), 770-783.
- Morosan, C. (2015), Understanding the benefit of purchasing ancillary air travel services via mobile phone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2(3), 227-240.
- Nairn, A., Berthon, P., & Money, A. (2007), Learning from giants - Exploring, classifying and analysing existing knowledge on market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9(2), 257-274.
- Petticrew, M. (2001), Systematic reviews from astronomy to zoology: myths and misconceptions, *Bmj*, 322(7278), 98-101.
- Rasinger, J., Fuchs, M., & Höpken, W. (2007), Information search with mobile tourist guides: A survey of usage intention,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9(3-4), 177-194.
- Rodríguez-Torrico, P., Prodanova, J., San-Martín, S., & Jimenez, N. (2019), The ideal companion: the role of mobile phone attachment in travel purchase intent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1-14.
- Dieck, M. C. tom & Jung, T. (2018), A theoretical model of mobile augmented reality acceptance in urban heritage tourism, *Current Issues in Tourism*, 21(2), 154-174.
- Turkle, S. (2011). Authenticity in the age of digital companions. *Machine ethics*, 62-76.
- Tussyadiah, I. P., & Fesenmaier, D. R. (2009), Mediating tourist experiences: Access to places via shared video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6(1), 24-40.
- Tussyadiah, I. P., & Wang, D. (2016), Tourists' attitudes toward proactive smartphone system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5(4), 493-508.
- Tussyadiah, I. P., & Zach, F. J. (2012), The role of geo-based technology in place experien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2), 780-800.
- Wang, D., Park, S., & Fesenmaier, D. (2011), An examin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and smartphone applications.
- Wang, D., Park, S., & Fesenmaier, D. (2012), The role of smartphones in mediating the touristic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 Research*, 51(4), 371-387.
- Wang, D., Xiang, Z., & Fesenmaier, D. R. (2014), Adapting to the mobile world: A model of smartphone use, *Annals of Tourism Research*, 48, 11-26.
- Wang, D., Xiang, Z., & Fesenmaier, D. R. (2016). Smartphone use in everyday life and trav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55(1), 52-63.
- Want, S. C. (2009), Meta-analytic moderators of experimental exposure to media portrayals of women on female appearance satisfaction: Social comparisons as automatic processes, *Body Image*, 6(4), 257-269.
- White, N. R., & White, P. B. (2007), Home and away: Tourists in a connected world,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88-104.
- Wong, J. W. C., Lai, I. K. W., & Tao, Z. (2019), Sharing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on mobile social media and how it influences further travel decisions, *Current Issues in Tourism*, 1-15.
- Yoo, Y. (2010), Computing in everyday life: A call for research on experiential computing, *MIS quarterly*, 213-231.
- Young, K. S. (2004), Internet addiction: A new clinical phenomen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4), 402-415.

2020년 07월 13일 투고본 접수

2020년 07월 21일 1차 수정본 접수

2020년 07월 23일 최종 수정본 접수

2020년 07월 25일 최종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 필

# 여행과 스마트폰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 분석 : Paradigm Funnel Approach을 이용한 체계적 문헌분석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n travel and smartphone relations : Focusing on systematic literature analysis using Paradigm Funnel Approach

정산설\* · 이 훈\*\* · 김경배\*\*\*

Jung, San-Seol · Lee, Hoon · Kim, Kyoung-Bae

### 국문초록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여행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자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통한 관광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높아지고, 스마트폰의 중요성 및 의존적 역할을 다층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200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지의 스마트폰 및 여행에 관한 논문의 기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주제별 동향 및 연구이론을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패러다임 펀넬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연구 논문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연구의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 학술지의 기간별 추세 분석에 따르면 국내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방법론은 정량 분석(96.9%)이고, 가장 많이 연구된 연구 주제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용이성(51.6%)이었다. 해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량 연구 65.0%가 진행되었으며, 정성연구는 33.3%가 게재되어 상대적으로 정량 및 정성 연구가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더불어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를 토대로 패러다임 펀넬법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논문을 분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관광 연구는 어플리케이션의 유용성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정 관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해외 관광연구는 연구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넓어 다양한 범위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여행의 관계에 대하여 심리적, 행위적, 생태적 등 다양한 측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외 관광 및 스마트폰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적절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스마트폰, 체계적 문헌분석, 패러다임 펀넬법(Paradigm Funnel), 스마트폰의존도, 여행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19S1A5C2A02082896)

※ 이 논문은 제87차 (사)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정산설,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jsan0114@naver.com>

\*\* 교신저자,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hoon2@hanyang.ac.kr>

\*\*\* 공동저자, 김경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kenneth7@hanyang.ac.kr>